

박종철 열사 관련 자료모음 3 : 1988 - 1990

목차

번호	일시	제목	생산처	페이지
1	1988. 01. 14	종철이의 뜻을 이어 투쟁으로 떨쳐 일어서자!! - 박종철열사 죽음 1주기를 맞이하며 -	민중정당 결성 학생추진위원회	3
2	1988. 01. 14	고 박종철 열사 추모식 및 고문살인 부정당선 미국청와대 독재 처단을 위한 청년학도 결의대회 투쟁선언문	서울지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4
3	1988. 01. 14	저는 박종운입니다.	박종운	6
4	1988. 01. 14	이제 우리 다시 너를 부른다 - 박종철 동지 1주기에 부쳐 -	박노해	8
5	1988. 01. 14	종부 형님께.	박종운	10
6	1988. 01. 14	종철아! 끝내는 이루고야 말 것이다! - 고 박종철 1주기에 부쳐 -	박종운	12
7	1988	또다시 드러난 고문살인 은폐 조작음모!	성남노동자투쟁연합	16
8	1989. 01. 14	민주열사 박종철 2주기 추모 및 노태우정권 퇴진 결의대회	민주열사 박종철 추모사업회 준비위원회 서울지역 총학생회 연합	18
9	1990. 01. 14	민주열사 박종철 3주기 투쟁계승 및 노태우정권 퇴진 투쟁 결의대회	민주열사 박종철 기념사업회 외	26
10	1990. 08. 18	성명서	민주열사 박종철 기념사업회	34
11	1990. 08. 31	고문, 되살아나려는가? - 고문 합법화와 6월 항쟁 무효화 음모에 대한 규탄 강연회	민주열사 박종철 기념사업회	36



종철이의 뜻을 이어 투쟁으로 떨쳐 일어서자!!

- 박종철열사 죽음 1주기를 맞이하며 -

4천만 민중이여! 백만학도여!

작년 1월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반역의 칼날에 난도질당했던 종철이의 피맺힌 주검이 오늘 21주기를 맞이하였다. 백주대낮에 자행된 엄청난 악의 관란속에서 꺼꾸러진 한 청년학도의 주검은 이땅 4천만 민중에게 뼈에 사무친 각성의 계기였음을 지금 우리는 기억한다.

그의 주검은 이렇게 말했다. “억압받는 민중이여 떨쳐일어나 악의 무리를 처형시켜라! 학살자가 왕좌에 앉아 생산의 주인을 수탈하는 이 엄청난 모순덩이 세상을 뒤엎자! 민중이여 투쟁하라!”

2월 7일, 3월 3일 박종철 추모집회와 49제때 ‘살인고문 자행하는 군사독재 타도하자’라고 외치며 폭력적 국가기구로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정권에 대항해서 싸웠던 민중들의 함성!

6, 7, 8월 이한열, 이석규 열사가 또다시 정권의 살인죄루탄 난사에 피흘리며 쓰러져 갔을때 이땅 민중은 독재의 그늘아래 버리지같이 살 것인가 아니면 독재와 싸우다 한열이나 석규같이 죽을 것인가의 갈림길에서 독재와의 투쟁을 선언했던 역사적 진군!

바로 이 모든 것을 지금 한낱 추억으로 돌리라고 강요받으며 1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노가 집권한 선거의 결과를 바라보며, 그 거룩한 피흘림을 되새김질할 뿐 응어리진 한을 풀지 못한채, 애통해 하고 있다.

누가 감히 죽은 자식의 시체를 끌어안고 통곡하는 어머니의 한을 또다시 감수하라 하는가!

누가 감히 학살의 주범이 조작한 선거의 결과에 항복하라 하는가! 조작된 선거결과에 어찌 종철이의 주검을 팔아 넘길 수 있단 말인가!

4천만 민중이여! 백만학도여!

선거의 결과는 노의 집권으로 귀결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폭력정권이 주도하는 가운데 정권의 모든 금권과 관권을 총동원하여 2조 6천억원이라는 돈으로 표를 사들이고 컴퓨터조작까지 자행하여 저지른 원천적 부정선거의 결과였다. 그리고 그결과를 미끼로 80년, 2000여 광주시민의 주검, 종철이, 한열이, 석규의 주검을 안보와 평화를 위한 질서였노라 강요하는 것이다. 그러나 7년간의 학정을 통해 뿌리깊어진 정권과 민중간의 적대감을 더러운 선거의 결과로 지우려 안간힘을 쓴다해도 더욱더 선명해질 뿐이다.

보라! 부정선거규탄을 진행했던 구로구청 농성시민에 대한 엄청난 폭력적만행을, 그리고 여전히 민중의 고향을 쥐어 짜는 외국농산물 수입을 이제 짱아찌, 뱀, 지렁이까지 개방한다고 한다. 그러면서 정권의 안정적 기반 구축을 위한 총선에 대비하여 정인용을 워싱턴에 급파해 “미국의 수입개방을 받아들일겠다”고 약속한후 총선시기를 피해서 수입할수 있도록 미루어 달라고 애원하고 있다. 또한 무슨 시혜라도 베푸는양 정권의 정당성을 획득키 위해 ‘구속자 1,000여명 석방예정’이라고, 온갖 매스컴을 통해 선전해 대고 있으나, 11일 명동성당에서 개최되었던 ‘민가협’주최 집회에서 구속자 선별처리에 대한 완전석방을 요구하며 눈물로 호소했던, 장기수 가족들의 비통함을 보면서 우리는 정권의 민주화에 대한 기만 유화조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 7년 아니 17년이 지나더라도 저 간악한 정권과 민중간의 적대감은 해소될 수 없으며 저들이 이사회외의 권력을 장악하는한 민중의 민주주의는 요원 할 뿐이다. 저들이 있는한 제 2, 제 3의 종철이가 또다시 존재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자! 이제 우리는 비통함에 젖어 있을수만은, 비겁한 눈물을 흘리고 있을수 만은 없다.

선거의 전과정을 통해 유세장마다 뜨겁게 표출되었던 온국민의 민주화 요구는 파쇼의 엄청난 부정의 결과로 좌절되었고 보수야당의 도당성에 기초한 분열주의는 이들을 믿었던 민중들의 열망을 배신한것을 똑똑히 기억하면서 우리는 선거의 결과를 민중투쟁의 새로운 각성의 계기로 전화시키자.

그것은 파쇼의 기만적인 유화조치가 민중과 정권의 적대감을 무마시키려는 작태에 불과하며 또한 구속자 석방 등의 민주화 요구를 정권과 타협의 담보물로 흥정하고 정권에 청원하는 제스츄어만 쓸뿐 완전석방을 위한 그 어떠한 투쟁의 자세도 정치적 실천도 수행하지 않는 보수야당의 불철저함에 더이상 우리는 민주주의를 떠맡길수 없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제는 정권을 완전히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민중 스스로가 정치의 전면에 나서는것 바로 그것이다.

종철이의 죽음을 한열이, 석규의 죽음을 이순간에도 우리를 채찍질하면서 선거의 패배는 순간이나 우리의 민주화 투쟁은 영원한 것임을 가르치고 있지 않은가! 선거의 패배를 민중이 정치전면에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는 감정으로 이어져 군사독재정권과의 과감한 투쟁에 떨쳐 일어나자.

4천만 민중이여! 백만학도여!

각각의 생산 현장에서 끊임없는 투쟁을 전개하자. 그리고 정치무대로 진출하자. 이제 민중 스스로 정권과 싸워 진정한 민주사회를 이룩하자!!!

1988.1.14.

민 중 정 당 결 성 학 생 추 진 위 원 회

고박종철열사의1주기 추도식을 대하는우리 청년학도는 열사의 넋과 명복을 기리며 조국과 민중에 대한 불타는 사랑을 받들어 분단 44년의 힘찬 투쟁의 결의를가슴깊이 새기고자 합니다. 열사의 꺼지지 않는 투쟁혼이 한알의 불씨가 되어 일어선 분단 43년의 구국투쟁은 2.7 3.3 6월국민항쟁, 7.8.9월 노동자의 투쟁, 막바지 선거투쟁으로까지 지속되었습니다. 닥시금 돌이켜볼때 민족해방투쟁의 장도에있어서 기념비적인 투쟁의 한해였습니다. 역사의 주인으로 나서려는 민중의 위대한 진출과 영웅적인 투쟁은 군부독재의 종식과 민주정부수립의 의지로 표출하였으며, 투쟁으로 쟁취한 직선제를 민주정부수립으로 열매맺기 위하여 거국내각수립투쟁과 공정선거쟁취투쟁을 수행해왔지만,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던 민주화는 미국청와대 독재의 사상유예없는 12.16부정선거로 강탈당했습니다. 미국청와대독재는 교활한 정치공작을 통하여 양김의 동시출마를 부추기고 온갖 금권과 관권을 다 동원하고 통.반장에 이르기까지의 전 행정체계를 다 동원하였고, 거기에다가 국고를 송두리째 놈들의 선거자금으로 방진하였습니다. 또한 선거당일날에는 존재엄상태에서 선거를 치루고 투표함 바꾸치기, 릴레이투표등 심지어 콤퓨터까지 이용한 파렴치한 개표 조작을 대대적으로 자행하였습니다. 미국청와대독재의 정치공작과 부정선거로 인한 노태우당선의 날조는 온국민의 민주화의 염원을 짓밟고 민주화의 좌표를 원점으로 돌려놓았습니다. 이러한 통탄할 사태는 일찌기 노태우역도를 백악관으로 불러들여 독재의 후계자 책봉을 하고 양김의 동시출마를 부추키며 이간질하는 미국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시거니, 클라크니 힐리니 하는 놈들을 시켜 대대적 부정선거를 배후조종하고 노태우당선이후 당선축하문을 보내오고 애국민중의 부정선거규탄투쟁을 "부정선거 증거없다"며 터무니없는 소리로 찬물을 끼얹은 것도 미국입니다. 당선발표이후 곧바로 미국놈들은 노태우대국역도에게 받아둔 계약서대로 보험시장개방, 쇠고기 수입, 양담배가격인하를 요구하며 이 땅의 민중의 생존과 민족의 경제를 파탄시키는 미국놈들의 작태는 바로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미국놈들이야말로 이 땅의 민주화의 열망을 가로막는 놈들입니다. 미국놈들의 정치군사경계의 모든 침략행위에 반대하여 조국강토에서 미국놈들을 몰아내지 않고 어떠한 민주화도 얻을 수 없다는 교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간의 투쟁에 대한 반성을 통해 오로지 투쟁을 통해서만 독재체제를 종식시킬 수 있다는 뼈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 독재를 종식시키지않고서는 어떠한 공정선거도 가능하지 않으며 대국역도의 무기는 오로지 투쟁을 통해서만 타도할 수 있음을, 우리의 투쟁의 잠시라도 늦추지면 놈들은 교활한 술책으로 다시살아 남을 민주의 새벽을 열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투쟁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불어 우리의 투쟁은 각계각층의 애국민중의 정파와 정견, 사상, 지역, 종교의 차이를 뛰어넘어 하나로 뭉쳐 단결투쟁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국놈들의 술책에 속고 당미당락에 눈이 어두워 애국의 대의를 저버린 양김의 분열때문에 온갖 부정선거로도 어찌지 못한 63%의 민주화염원의지를 가지고도 노태우 대국역도에게 정권을 내어준 이 땅의 4천만 민중들의 실망은 얼마나 컸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선거투쟁을 통한 교훈에서 단결투쟁의 힘, 애국민중스스로의 대동투쟁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러한 교훈에서 좌절과 실의가 아닌 새로운 투쟁의지와 결의로 다시 분기하여 반미반독재 구국항전으로 자주,민주,통일의 새국면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앞에는 애국인사에 대한 고문학살과 7년학정의주범, 부정협잡선거의 원흉인 노태우의 동국을 이땅의 고통받는 민중의 한과 열사의 넋을 풀기 위해 저지 파탄시켜야 하는 절박한 투쟁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아직도 수천명에 이르는 양심수와 수백자가 엄동의 철창속과 거미에서 고통받고 있으며 고문학살의 산실인 안기부,치안본부,보안사의 검은 촉수가 우리의 목을 찌고 있는 현실에 "평화적 정권교체"는 어불성설입니다. 박종철열사를 학살한 장본인들이 국회의원으로 나서는 통탄할 현실을 어떻게 보아야합니까? 구로구청에 대한 살인적 진압및 부정,협잡선거에 대한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없이 진행되는 총선협상,대화합은은은 이러한 죄과를 묻어두고 살인마의 합법적 집권을 영구화하려는 기만책동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 입니다. 이에 우리는 기만적 근정세습 책동인 노태우의 대통령취임을 파탄 저지시키기 위해 더욱 가열찬 부정선거규탄과 군부독재 타도투쟁을 힘차게 벌여나가야 합니다. 또한 노태우를 날조당선시키고 그 댓가로 우리민중의 생존권을 쥐어짜는 미국놈들의 경제침략을 여지없이 분쇄해야 합니다. 이땅민중의 이익보다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노태우의 집권은 앞으로 실세 없이 경제침략행위를 자행할 것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보복적인 경제침략의 음모를 분쇄하고 우리 민중의 이익을 옹호하고 고수하며 민주화를 이룩하기 위해 반미항전의 기치를 높이 울려야 합니다. 또한 88분단올림픽을 통해 영구분단을 획책하고 식민지 파쇼체제를 재구축하려는 미국청와대독재의 음모를 분쇄하고 민족대단결의 실현과 평화적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힘찬 투쟁을 전개하는 분단 44년의 한해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애국청년학도여. 각계각층의 애국민중이여!
우리는 승리합니다. 고문학살. 부정당선 노태우의 정권을 반대하고 미국의 경제침략에 반대하는 우리의 투쟁과 애국민중들의 대동단결된 투쟁이 있는 한 우리는 승리합니다. 승리의 그날까지 한치의 흔들림없이 단결하고 투쟁하여 승리합니다. 고 박종철 열사와 민주영령의 숭고한 뜻을 계승하고 이땅의 천만 민중과 함께 투쟁의 선봉에서서 본단 44년을 자주, 민주, 통일외 한해로 만듭시다.

- 고문학살 부정당선 전노일당 처단하자!
- 부정당선 노태우가 대통령인 완판이나!
- 학살만행 규명없이 총선협상 어림없다!
- 양심수 전원석방! 수배자 전원해제!
- 민주안사 고문학살 안기부 치안본부 보안사를 즉각 해체하라!
- 노태우당선 날조 주범 미국놈들 몰아내자!
- 한국민중 지땀짜는 수입개방 결사반대!
- 농민기만 가짜공약 노태우정권 따도하자!
- 대동단결 대동투쟁 군부독재 끝장내자!

본단조국 44년 1월 14일

서울지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저는 박정은입니다.

사랑하던 후배 총철이를 악랄한 군사파쇼의 무리들에게 빼앗겼던 놈입니다.

우리의 투사 총철이는 적과 싸우다 쓰러져 갔습니다. 또한 그때 저도 죽었습니다. 이 민족 모두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총철이는 죽지 않고 몇 번이나 되살아나 싸웠습니다. 우리도 함께 싸웠습니다.

1주기를 맞은 현재, 대통령선거에 좌절한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총철이는 다시 일어나라고 외칩니다. 각 일간신문에 실린 황적준 의사와 안상수 변호사(당시 검사)의 증언 속에서 총철이는 다시 살아나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투쟁하라!고.

동지!

고문살인보다 더 악랄한 은폐 및 조작지시에 지금 온 국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은폐될 수 없습니다. 이 정권이 고문살인정권, 은폐조작정권이라는 것이 다시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사상유례없는 부정선거로 인해 비록 좌절하고는 있을망정, 부정선거 결과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이런 국민들은 고문살인정권, 은폐조작정권을 결단코 용납치 않을 것입니다.

이런 국민들의 뜻을 살리고, 총철이를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되어야 합니다. 민중이 주축이 되고 모든 민주세력이 포괄되는 조직을 다시 만들어서 싸워야 합니다. 대통령선거에서는 현실적 승리 가능성과 미래의 승리를 담보하려는 움직임이 서로 얽혀 다양한 본파로 갈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뭉쳐야 합니다. 저는 노동자계급이 가장 철저한 민주주의자로서 이 대단결의 선두에서 도둑 노력할 것입니다. 총학생회장 동지도 학생들 사이에서 그런 움직임을 선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대단결을 다시금 군사파쇼 통치를 끝장낼 교두보로 만듭시다.

이제 총철이의 1주기를 전국민적 애도와 온 국민적 단결투쟁 속에서 기념하도록 합시다. 서울대 총학생회에서 마침 총철이 1주기 추모식을 거행하려고 하는 데 대해 무한한 감사를 보냅니다. 이 추모식을 분서로 하여 마침내 등불이 광야를 휩쓸 것입니다.

동지,

제가 부탁을 들어 주십시오.

저는 신문에서 총철이 아버님이 총철이 묘를 만들지 못한 데 대해 불만해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총철이의 따뜻한 정아 담겼던 목도리를 보냅니다. 이 목도리는 총 철이가 죽기 바로 전에 제 목에 감아주었던 목도리입니다. 유품품을 한데 모아 온 국민이 함께 가묘(假墓)라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민주주의의 성소로 기리게 합시다. 목도리를 부모님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봉투 속에 든 것은 친형에게 보내는 편지와 추도사입니다. 이것도 전해주시고, 또 이것들이 민주화운동에 도움이 되게끔 추모식에서 낭독해주시고, 각언론사, 운동단체, 각학교에 복사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16일 국민운동본부집회에 총집결토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도 여러분의 투쟁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몸소 나서서 모든 것을 하고, 부모님께 위로할 하고, 여러분 앞에 나섰으면 좋겠습니다만, 수배자의 죽쇄는 그것을 허용치 않는군요. 그래서 후배되시는 여러 학생동지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동지,

민주, 민주위사건으로 수배되고 민민주 노해동, 계현의회 그룹사건으로 거듭-거듭 수배되면서도, 저는 언제나 민주화운동에 헌신하려고 했고, 언제나 우리 민중의 고통에 함께 하였습니다. 무미건조한

생활, 엄청난 감시망 속에서도 군사독재를 타도하고 민주주의를 쟁취한다는 일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증철이의 유지를 이어받을 뿐 아니라, 선배들의 뒤를 잇고 후배들의 모범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철저한 민주주의자로서,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체제를 종식시키기 위한 투사로서 가장 철저히 싸워나가겠습니다.

함께 어깨걸고 싸워나갑니다.

진리와 민중애의 열정에 불타는 학생동지들의 건투를 빕니다.

1988 년 1 월 14 일

박 종 운
(朴 鍾 雲)

이제 우리 다시 너를 부른다

-박 종철 동지 1주기에 부쳐-

박 노 해

차갑게 얼어붙은 이 땅덩어리에
 안땀의 무덤조차 없는 자식아!
 죽어서도 강제로 불태워져
 반동의 총칼 번득이는 이 음습한 거리를
 진눈개비로 떠돌아 으스스한 애처로운 자식아!
 종철아 종철아
 우리 너에 아무 할말이 없대이

종철아 너의 이름을 부르며
 민주주의를 부르며
 쏟아지는 최루탄을 무릅쓰고 폭행과 구속을 불사하며
 얼의 가두를 힘쓸것만
 개통령 선거유세장을 가득 메웠건만
 학살주범의 부정선거 재집권조차 못막아낸 우리는
 아 철아 우리 정말 아무 할말이 없대이

를 죽인 살인마들이
 미문은 손을 뒤로하고 의의낙낙하며
 주화합을 외치고 있구나
 를 죽이고 한없이 석규를 죽이고
 주민증을 학살하고 구로구청의 민증을 학살한
 치떨리는 살인마들이
 이 미문은 손을 내밀며 안정과 화합을 떠들고 있구나

를 고문해 죽인 박치원 일당은
 적도 시퍼렇게 살아 국가 유공자로 살아
 다시 고문을 자행하고 네동지들을 추적하며
 징 그림표를 그려가고 있다.
 를 두번 세번씩 죽이며 은폐조작한
 민창, 이영창, 유길증 살인 수뇌부 일당이
 증수렁게도 은폐조작 부정선거로 재집권한 노태우의
 의의원 공천에 나서고 있다

종철아!
 를 죽음에 이르기까지 캐넌
 동지들은 지금도 수배자로 쫓기고 있다
 종의 의망이 쫓기고 있다
 종의 행복이 쫓기고 있다
 금도 차가운 감병에 정치범들이 갇혀 있다
 종의 자유가 갇혀 있다
 나라의 진실이 갇혀 있다

지금도 노동자와 민중들이 투쟁하다 탄압 당하고 있다
 우리의 사랑이 깨지고 있다
 우리의 소중한 꿈이 깨지고 있다

그러므로
 저 기만적인 민주화합의 요란한 제스추어로는
 저 미문은 손으로 내미는 양보와 화해책으로도
 저 광풍에 나부끼는 88올림픽의 만국기도도
 달여진 민중의 마음은 갈단코 얼지 못한다
 종철아!
 차가운 지하 옥조에 처박힌 숨이 킁킁 막히는 순간에도
 온 육신이 전율하며 갈갈이 찢기는 철침대 위의 전기 고문
 여린 속살 네·알몸 위로 퍼부어지던 각목 난타로도
 너의 악다문 입술만은 얼지 못하였다
 내가 죽음으로 지킨 동지와 조직만은 캐내지 못하였다
 네 여린 살덩이를 몽쳐, 네 뜨거운 피를 엉켜,
 네 온 목숨의 빛장을 글세게 가로 질러
 처참한 고문으로도 얼지 못한 빛장!
 그것은 사랑이었다 민주주의였다 애방이었다

아 철아 철아!
 결연한 의지로 단호히 닫힌 우리 민중의 마음은
 오직 저 군사파쇼를 쓸어버리고
 우리 민중의 손에 정치권력을 장악할 때만
 기쁨으로 춤추며 열려질 것이다
 우리 다시 당당한 투지로 무장하여
 우리 다시 강철같은 조직으로 결속하여
 우리 다시 진군의 북소리를 울리며
 우리 다시 저 장렬한 투쟁 전선으로 나서려 한다
 우리 민중의 손으로 파쇼의 총칼을 분쇄하고
 이 제국주의 흡혈판과 핵무기를 뽑아 던지고
 독점재벌을 몰수하여 민중의 재정을 만들고
 모든 권력과 부를 우리 민중의 손에 확실히 장악하여
 아아 마침내
 눈부신 민중의 나라로 민중의 시대로
 애방의 새날을 열어 나갈 것이다

종철아 종철아 피루성으로 부릅뜬 종철아!
 네 무덤은 임진강의 얼음짱 위가 아니다
 너의 무덤은 4천만 민중의 가슴으로 으르는 애방의 열망이다

도화선처럼 이어진 투사의 가슴 속이다
너는 훔날에 떠오르는 한줌 가루가 아니다
너는 절망과 암흑을 불태우는 민중의 투혼의 화신이다
세변이고 백변이고 민중의 투쟁 속에 되살아나는 불사조이다
네가 애맷은 개구장이 웃음지며
소담한 눈송이로 펄펄 쏟아져 내려
이 땅 위에 봄날의 들 꽃으로 물결치고
도도한 강물로 흐르며 노래하고
희망의 무지개로 떠오르기까지
아 종첩아!
민중의 희망으로 되살아나는 철아
세변이고 열변이고 되살아나는 불사조야
이제 우리 다시 너를 부르며
민주주의를 부르며 소리치며
이제 모든 좌절과 동요를 떨치고
투쟁의 전선으로 위달려간다
종첩아! 종첩아!

1988년 1월 14일

종철(宗澈)형님께

형님, 제가 박종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종철이를 민주주의의 제단에 바치고도 아직까지도 이땅의 민주주의를 달성 못해 얼굴조차 들기 부끄러운 증은입니다.

지난해 몇 차례 거듭된 수배조치로 끊임없는 긴장 속에서 정보경찰의 독사같은 눈과 전투환정권의 사냥개들의 보름 피해 다니면서도 한사코 우리 종철이의 원혼을 담태고 종철이의 유지(遺志)를 이 어받아 이땅에서 저 악랄한 군사독재정권을 몰아내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달려가서 종철이의 사늘한 시신을 부동켜 안고 영영을 자유도 없었고, 땀가투를 만져볼 수도 없었습니다. 종철이 아버님을 비롯해 온 가족이 모두 나서 싸우는 데도 옆에 다가가 손을 덥석 잡아 함께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악랄한 군사독재정권의 파여진 각본에 의해 진행되는 수사. 재판도 눈을 번연히 뜨고 감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을 쥐어짜는 듯한 아픔은 오직 또 다른 투쟁으로만 승화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통탄스런기 그지없고 분노를 가늘길 없는 이 현실은 끝끝내 뒤집어엎지 못했습니다. 저는 종철이의 원혼 앞에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종철이의 따뜻한 마음씨와 불굴의 의지에 대한 추억이 회물아쳐오면 회물아쳐올수록 저에게는 자책감과 함께 반드시 우리 종철이를 가슴 속에 새기고 온 국민과 함께 끝내는 일어서고야 말리 약속 결의가 더욱 굳어집니다. 종철이는 생전에 따뜻하고 온유하고 명망하면서도 불의에 무릎 굽지 않는 기개를 가졌습니다. 감옥에 갔다와서 그 어려운 시기에도 친구가 차비가 없으면 차비를 주선해주고 누울 곳조차 없으면 하숙집에라도 데려다가 재웠으며, 이 못난 선배도 따뜻이 맞아주고 처지를 함께 걱정해주었습니다. 누나가 손수 짜주었다는 목도리도, 추워보인다면선 선뜻 벗어 제 목에 감아주었던 그런 애였습니다. 종철이는 저의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종철이는 그 모진 물고문 속에서도 전기고문 속에서도 동료, 선배를 지켜내는 불굴의 의지를 보였습니다. 종철이는 우리 모두의 기개로 살아 있습니다.

우리의 실책은 종철이의 죽음과 가슴스러운 고문은폐 축소 조작에 분노한 온 국민의 투쟁이 전국을 뒤 흔들고 마침내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우리 앞에 활짝 열어놓았을 때, 군사독재가 완전히 거꾸버지지 않았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매배할 지 모른다는 것을 모든 민주인사들에게 납득시키고 이에 대비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백선생님과 함께 두 아당이 합쳐 민주연립정부를 세우자는 주장이 무산되고 사기꾼, 살인마가 온갖 부정선거를 앞세움으로써 악랄한 군사독재가 재집권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철이가 굴복하지 않았듯이, 결코 좌절하지 않을 겁니다. 종철이가 심어준 기개는 오늘도 저를, 우리 온 국민을 체력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종철이의 1주기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종철이의 1주기를 맞아서도 종철이를 추모할 아무 흔적도 없다는 것을, 아버님의 회한어린 말씀이 보도된 것을 통해 알고, 저는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간악한 무리들은 종철이의 유류품 일체를 소각시켜 우리의 가슴 속에서 종철이의 기억을 지워버리려고 했지만, 종철이의 원혼이 허도는 한 우리는 잊을 수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종철이를 기억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종철이의 가묘(假墓)라도 만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버님 말씀대로 한강이 없어지지 않는 한 종철이는 살아있을 것이지만, 종철이의 가묘라도 있어서 모든 이들이 찾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종철이의 가묘를 만들고 그것을 민주주의의 성소(聖所)로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이나마 종철이를 추억할 유류품이 있어야 한 것입니다.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종철이의 유류품을 보내고자 하니

> 부러이게 서포될 지 모르는 상황에서 영원히 없어질 혼적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 보내고자 합니다.

종철이의 가모는 민주주의의 성지인 망월동에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망월동의 부름은 눈들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똑똑히 지켜본 것입니다. 종철이가 거기에 눕는다면, 한얼이도 있고 해서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종철이의 가모는 1주기를 맞아 온 국민이 추억하고 애도하는 속에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선거에서의 부정집권에 좌절해버린 온 국민이 다시 분노로 일어서고, 좌절을 딛고 단결투쟁하는 온 국민적 분위기 속에서 이 치명적야 종철이가 약간이라도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도 온국민의 추억과 애도 투쟁이 있는 그곳에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가모 만들기와 온국민의 추억, 애도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비록 서로 만나지 못하는 조건이나마 저는 형님의 제2의 동생이 되고, 부모님의 제2의 아들이 되어 싸울 것입니다.

형님, 아버지, 어머니, 종철이 누나에게도 안부전해주십시오. 대학모에서 어머니가 해방춤 출 그날 까지 함께 싸워나가자고 하신 말씀은 저에게나 우리 온 국민에게나 무한한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온 가족이 종철이 되를 이어 싸워나가는 것을 저는 멀리서나마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의 투쟁과 하나될 그날, 제가 소주 한병 사들고 찾아뵐 수 있을 것입니다. 찾아뵐 수 있는 그 날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1988 년 1 월 14 일

종철이의 못한 선배 박 종 운 올림
(朴鍾雲)

다. 그 뒤로는 종철이가 죽기 직전 저게 감아를 탄복이니입니다. 제나 어떻게 안락한
살아나 하리만, 이미 정철이가 유복함을 저 조니노이 것이 무척 감사, 또 제가 먼저
이렇게 감수하 지어

[追悼辭]

***** 종철아! 끝내는 이루고야 말 것이다! *****

--그 박종철 1주기(一週忌)에 부쳐--

종철아! 종철아!

내가 치열히는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본실에서, 그 차디찬 옥조 속에서, 비명도 내지르지 못한 채 쓰러져간 날이 다시금 돌아왔다. 그런데 너의 못한 형 종운이는 너의 죽음을 맞은 후 1년이 지난 오늘까지 네 영전에 꽃 한송이조차 바치지 못하였구나. 하늘이 무너지듯 무너져내린 너의 젊은 넋을 여의고, 우리 뜨거운 희망과 염정의 나날들을 허공에 날리며, 나는 겨우 네 사진 앞에서 눈물을 툭툭 떨어뜨리며 주먹을 꽂히고 이를 앙다물기만 했을 뿐이다. 네 시신을 부여잡고 통곡할 수도, 네 벗가 부라도 부둥켜안고 너의 못다한 뜻을 이어받을 수도 없었다. 이 참혹한 땅덩어리 위에서 나를 업어 데고 있는 수백자라는 족쇄는 너를 만날 수도, 보낼 수도 없게 하였다.

그래서 종철아! 나는 네 가슴 속에 너의 시신을 묻었다. 너의 부릅뜬 두 눈을 씌어 버리고 먼 길을 떠나보내 버리기보다는 이땅 위에 영원히 너의 꽃넋을 살려내기로 하였다. 나의 길 그것은 투쟁이었다.

X X X X X X X X X X

그런데 종철아! 네 이름부르기가 이렇게 두렵구나. 이렇게 부르며 울 수 없구나. 잔재를 이 산하를 원혼으로 떠돌면서, 아직도 저승편편 군사독제를 노려보고 있는 종철아! 군사독제가 지배하는 이 음습한 거리를 진눈개비로 휘몰아치며 통곡하고 있는 종철아! 너를 민주주의의 제단에 바치고 네 미를 나눠마시고 네 살을 먹으면서 끝은 결의를 타졌건만, 한얼이 쇠구마져 네 곁으로 보내면서 최후만 범벅, 눈물 범벅 속에 온 몸으로 싸웠건만, 우리의 영원 민주주의를 아직도 이뤄내지 못했구나. 6월의 함성, 전국민의 행진 속에서도, 12월 대통령선거의 열렬한 투쟁 속에서도, 아 아! 우리는 군사독제의 재집권을 끝내 막아내지 못하였구나. 그리하여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구나.

X X X X X X X X X X

종철아! 생각난다! 업동실한 미죽고 찬 자취방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술한 이야기들, 이 나라의 민주와 민중의 장래를 모색하며 토론으로 함께 밤을 지새던 나날들, 착취와 억압에 지든 민중의 얼굴에 환한 웃음을 가져오기 위해 함께 걸어왔던 투쟁의 길! 군사독제가 모진 탄압을 해오면 울 수록 너는 더욱 강철같이 단단해졌고, 그들이 온갖 악비한 술수를 부리면 부릴수록 너는 불의를 불사르는 정의의 불꽃으로 살아올랐다. 네가 민주주의를 외치며 투쟁에 앞장서다 감옥에 갇혀갔을 때 나는 너를 통하여 이 시대의 어둠을 걷어내는 신세력의 받건음을 들었던다. 너는 언제나 띠없이 맑은 민중의 아들이요, 모든 사람의 고통과 아픔에서 눈을 돌릴 수 없는 투사였으며, 머네도 머네도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새암을 가진 우리의 참된 동지였다.

그런 종철아! 너가, 저 관악한 군사독재정권의 만행 앞에 무참하게도 주검이 되어 돌아왔다. 나, 박종운을 찾겠다며 너의 목숨을 빼앗아가 버렸다. 종철아! 기억해다오! 나는 이미 너와 함께 죽었다!

그러나 종철아! 사실 죽은 것은 너만이 아니다. 또 너만이 아니다. 이 시대와 이 민족이 모두 죽은 것이고, 참된 민주주의는 마지막 한조가미조차 남지 않고 모두 죽어 버렸다. 사랑하던 친구 우종운이를 고통으로 죽여 영동철도변에 버림 때부터, 군대형을 모진 고통으로 몇 번

직이나 죽음으로 몰아넣은 때부터, 사랑하는 우리 동료 인숙이에게 야수적인 성고문을 자행할 때부터 이 나라에 살아 남은 것은 오직 반동군사독재정권뿐이요, 탄압과 착취의 족쇄뿐이었다.

이제까지, 우리는, 죽어버린 너와 나, 우리 온 민족과 민족의 앞날을, 그리고 찬란한 민주주의의 새날을 되살리기 위하여, 군사독재정권을 깨꾸터트리려고 싸워왔던 것이다.

종철아! 내가 죽음으로 불려일으킨 투쟁은 민주주의의 절규가 되어 네 가슴을 헤집고 온 국민의 가슴을 울리며 6월에 전국을 뒤흔들었다. 그리하여 전국을 휩쓰는 투쟁 속에서 나는 보았다. 6월의 하늘 속에서 서서히 살아나는 너를! 너는 민주주의의 승리와 함께, 군사독재의 굴복과 함께 깨어 일어나고자 용렬임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종철아!

16년만에 대통령선거를 쟁취해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부정선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민주주의를 이뤄내지 못했구나. 이 어이없는 결과가 무엇이란 말이나?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좌절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주의를 잡아먹는 불가사리는 오늘도 수배자를 쫓고 술한 민주인사를 감옥으로 감옥으로 몰아넣고 있지만, 나는 이에 굴하지 않을 것이다. 선거부정의 진상을 낱알이 밤혀낸 것이며, 군사독재를 타도하기 위해서, 군사독재와 싸울 수 있는 모든 기회와 수단을 버리지 않고 싸울 것이다.

종철아!

민주주의는 미를 먹고 자란다는데, 너를 계단에 바치기도 우리는 민주주의를 향해 여지껏 여기까지밖에 나아가지 못했구나. 그렇지만 우리는 마침내 일어나 끝내는 이루고야 말 것이다. 민주주의의 고갈을! 내가 죽음으로 지켜낸 민주투사들과 민주주의의 드높은 데의는 우리의 민주투쟁의 꺼지지 않는 등불, 짙짙한 밤에도 이 민족을 인도하는 북극성이 되어, 마침내 민주주의를 이룩하고 나아가서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체제를 종식 시키는 해방의 날을 앞당길 것이다. 그 속에서 너는 부활할 것이며, 역사는 너를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종철아! 나를 지키기 위해 처참한 고문을 당한 끝에 살해당한 종철아!

내가 죽는 순간 나 박종은이도 죽었다.

이제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나는 내가 아니다. 나 박종은이는 앞으로 너의 한을 풀고 너의 열망을 이루하는 도구로 삼아갈 것이다. 종철아! 사랑하는 종철아! 이제 나는 다시 한번 약속한다.

종철아!

나, 종은이는 언제나 네 곁에 있을 것이다. 오늘도 가증스러운 군사독재와 미제국주의와 맞서 싸움으로써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지독한 수배망을 들고 내가 그토록 열망하던 민주주의를 위해 불사 부처림 싸워나감으로써 또한 네 곁에 가장 가까이 있다. 저들이 온갖 가지의 양보와 탄압으로써 민주투쟁의 길을 오염시키고자 해도 나 종은이는 끝끝내 너의 뜻대로 투쟁할 것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다가올 고난, 승리의 새벽의 영광 속에서 너를 부르마! 크게 소리쳐 부르마!

"종철아! 내가 왔다" 엉엉 소리내 울면서 우리 함께 외쳐 보자꾸나!

"우리가 이겼다" "마침내 이겼다." "민주주의 만세!" "민족통일 만세!" "민중해방 승리 만만세!"

1988년 1월 14일

박종은 (朴鍾鬪)

영! 임진강물은 얼마나 차더이까? 얼핏 따스한 기운에 몸을 감추고
 잊힌 우리도 이제 제모습을 드러내려하는 데 땅속까지 얼어붙을 이후되어
 얼마나 얼더이까? 새삼스레 형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임년이 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한 손간도 바짐없이 우리에게 나타나 태론 가슴 아픈 눈물짓게
 하고 평온 두 주먹 불끈 쥐어 죄게하던 형. 그때 밤서 임년이 지났구로.
 죽마 락을 미끼조차 꿈쩍한 고문으로 형이우리의 곁을 떠나고, 그로하여
 갈아한 우리의 행포가 빙산의 일각이나마 복되었던 그때로부터. 이 땅이
 되든들 이도투 양심있는 자 무놓아 올렸더이다. 형 하나주 아니었기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고 앞으로도 계속될것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우리는 모두
 분노했더이다. 게다가 추증스러운 자들은 범죄의 핵심을 숨기기 위해 '은혜
 전파'라는 주연을 쓰고 국민을 농락하며 하였으니, 참을 수 없더이다.
 친구 영의 도저히 참을 수 주 없더이다. 6월 10일을 시작으로 불은 불고 그것은
 거대한 불경도 치솟아 올랐더이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불타올랐더이다. 한염
 이 주 주로 이 쇠구동지 주 주고, 그렇게 무숨바쳐 싸웠더이다. 최후만 연기 주
 아 격처럼 되어도 그침줄을 몰랐더이다. 결국 자들은 모함한 항부문서를 내보
 이더이다. 믿을 수 없었음에도, 그에도 아랑곳없이 7, 8월은 계속 노동동지의
 뜨거운 투쟁이 전국을 휩쓸었음에도, 우리 끝내 좌신제의 허울아택 신겨라는
 모치소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모두는 무참한민주를 외쳤더이다. 민중의
 삶을 망쳤더이다. 민중의 바램을 부르짖었더이다. 그런데 자들은 우리를 TV
 앞에 앉혀 또한번 우롱하고 떠돌은 입으로 미소치으며 나타났더이다. 부정을
 막기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로 다치면서까지 싸웠더이까. 모두의 가슴엔
 얼마나 비참한 비망이 또 들었더이까. 슬잔기울이며 압제의 시대를 ~~망~~ 울렸더이다.
 우리의 울탄피눈 어디로 갔느냐고 울부짖었더이다. 당선자가 추증스러운 미소를
 올리며, 양모없이막 시장을 돌아다닐때에도, 영광등공장에서는 한창때의 젊음 이
 수는 증등으로 쓰러져가고, 밤새도록 공장기기는 돌아가고 있론데, 국보법이 라는
 판주부는 약전이 휘돌려지고 있는데, 호텔용 쇠고기며, 양담배며 주 밀려들어와
 농민들의 가슴을 무벼놓고 있는데, 삼견 사주면서 팔아야한다며, 같이며 쓸 거며
 모두 내주고 있는 이 현실을 애써 치장하면서 국민의 피땀을 쥐어짜는 자들의
 주된어, 산업재해문 제 주 신문에 났으니 마지못해 대책을 세우는 척 해야한다 라는
 배부른 농들의 작태에 다시한번 분노의 화삼을 쏘아보냅니다.

영! 맑아진건 하나도 있는듯하더이다. 모두가 안 되겠다 는 체념에 빠져버린
 듯도 하더이다. 허나 또한, 인간이고자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주진것없이도
 떠안건 내건 차기 위해 오늘을 믿고 임어서는. 우리이기에 우리 웃을 수 있더이다,
 눈물 주역 두 주먹 불끈 질 수 있더이다.

모두가 지금은 참들어 있는 사자의 피를 받아먹고 있지만, 사자는 깨어나고야

말씀이이다. 그 으름장처럼 천지를 뒤엎들어 놓을 그날이 오고야 말 것이이다.
그날은 도저히 잡을 수 있는 때,
부름 받으시라 지켜봐 주십시오.
그 부름의 상으로 함께 어깨걸고 나아갑시다. 영!

또다시 드러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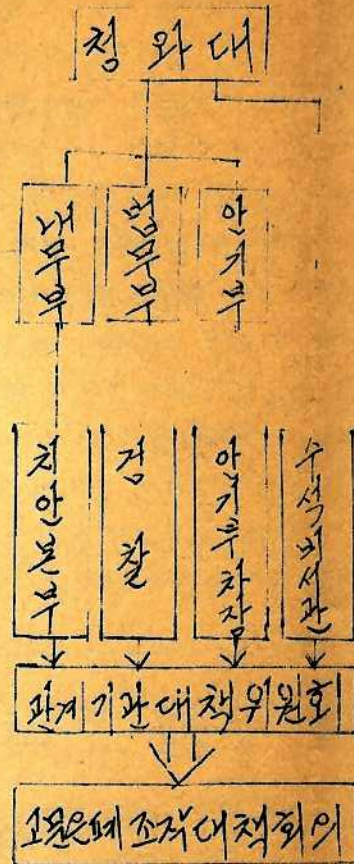
고문살인 은폐 조작음모!

관계기관대책회의는 고문은폐 조작대책회의 였다!



박종철 열사

민정당 — 양정협의회



관계기관대책회의 것은
 고문은폐 조작대책회의 였다.
 은폐조작! 이것은 강민창, 박차원
 뿐만 아니라 독재권력의
 고문은폐조작 바로 그것이였다.
 은폐조작의 괴수 전두환.
 노태우를 처안해야 한다.

또다시 드러난 살인고문 은폐 조작음모

지난 12일 박종철을 부검했던 국립과학 수사연구소 법의학 황적준 박사가 지난 87년 1월 4천만 민중을 분노케 했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은 처음부터 치안본부장등 고위 간부들에 의해 계획적으로 은폐, 조작 되었다고 폭로했다. 황박사는 당시 상황을 기록한 일기장을 공개했다. 그 일기장에 당시 치안본부장 강문창, 수사과장 박차원, 주영덕등 치안고위 간부들이 황박사에게 박종철의 사인을 고문이 아닌 쇼크사로 해줄 것을 회유, 강요 하였다고 적고 있다. 또 당시 고문치사사건의 지휘검사였던 안상수 검사 (현재 변호사 개업)는 사건의 진상 조사는 처음부터 고위층으로 구성된 관계 기관 대책 위원회의 압력과 지침 때문에 제대로 진상을 조사할 수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해 1월 청년학도를 불법 연행하여 고문해 죽이고도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라는 허무맹랑한 발표로 4천만 민중을 분노케 하고, 고문살인의 범인을 축소 조작해서 또 4천만 민중은 분노케 하더라. 이제! 아예 처음부터 고문 진상을 은폐, 조작하려 했더니, 도대체 고문살인의 진상은 무엇이란 말인가? 종철이는 어떻게 죽어갔단 말인가?

고문은폐 대책회의, 그것은 현 정치권력 전체가 은폐조작에 관련된 증거다

이번의 황박사와 안상수 검사의 증언에 따르면 현정권 내에 관계기관 대책회의라는 것이 있었고, 이것에 의해 철저하게 사건의 진상이 은폐 되었음을 쉽게 알수 있다. 특히 범인을 조사할 기일이 15일이나 남아 있었는데 이를 막기위해 대책회의에서 담당 검사인 안상수씨에게 수사중지 명령이 내려진 것이다. 검사에게 수사 중지명령을 내린 관계기관 대책회의는 무엇인가? 이 회의는 안기부 차장, 청와대 수석비서관, 검찰총장, 치안본부장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살인고문 은폐 조작을 위해 갖은 수단을 동원했던 것이다. 이들은 정부 기관들이 움직여지고 정권의 핵심이 전적으로 고문은폐 조작을 위해 발바닥이 닳도록 뛰어다녔던 것이다. 은폐, 조작에 핵심 권력층이 관련 되었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전두환, 노태우도 더이상 할말이 없을 것이다. 바로 이들이 범인인 것이다.

고문살인 은폐범이 곧 부정선거의 원흉이다.

살인고문 은폐 조작의 실질적인 배우인 전두환, 노태우중 한명은 새 대통령, 한명은 명예로운 국가원로가 되려고 하고 있다. 정호용, 이영창, 강민창등의 이야기는 할 필요도 없다. 살인자, 살인 은폐범들이 이렇게 버젓이 살아가고 있다. 더우기 이들은 부정선거로 권력을 불법적으로 탈취하고 독재권력을 지속시키려 하고 있다. 이 살인권력, 은폐권력, 바로 부정선거로 자기 생명을 이어가는 군사독재를 우리 민중은 용납해서는 안된다. 살인 정권, 부정정권, 은폐 조작정권 타도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광주학살 고문살인

군사독재 타도하자!

박종철 열사 추모집회 개최되다./

지난 1월 14일 오후 2시 서울대학교에서 서울대 총학생회 주최, 서대협 후원으로 "박종철 열사 1주기 추모식"이 1.2부로 나누어 열렸다. 1부는 개회사로 시작하여 군사독재 타도의 결의를 다지는 민가협 대표 김세진 열사의 아버지, 종철이 어머님, 전대협 청년학도의 추도사로 이어졌다. 집회에 참석한 시민, 학생들은 "광주학살 고문살인 군사독재 타도하자" "부정선거 자행한 군사독재 타도하자"는 구호를 외치며 군사독재 정권의 살인 고문에 죽어간 박종철 열사의 뜻을 이어 군사독재타도 투쟁으로 펼쳐 일어설 것을 결의했다. 2부에서는 택시기사의 파업투쟁에 정부와 악덕기업주의 파렴치한 작태를 폭로한 우성택시 파업투쟁 보고, 구로구청 농성 투쟁에서 옥상에서 폭력경찰에 맞서 민주주의를 사수하다가 연행되어 석방된 청년학도의 피맺힌 현장증언, 구로구청 농성 투쟁 진압과정에서 떨어져 하반신 마비가 된 양원태 군의 아버지는 구로구청 농성 투쟁은 정당했으며, 그것을 잔인하게 진압하면서 당선된 노태우 당선은



무효입과 양원태 군을 대신에 자신과 함께 군사독재 타도 투쟁으로 나설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이어져 마지막으로 전대협의 투쟁 결의문으로 집회를 마쳤다.

집회를 마친 시민, 학생들은 스스로 스크럼을 짜고 고문을 차단한 경찰과 대치 "광주학살 고문학살 군사독재 타도하자!" "부정선거 독재 타도"를 외치며 격렬한 투쟁을 전개 하였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시민, 학생들은 박종철 열사의 죽음의 슬픔에 빠져 있지만 앓을 것이며, 분노만 하지 앓을 것이며, 광주학살, 고문학살, 구로학살 정권! 군사정권 독재 정권! 사기 당선된 노태우 처단 투쟁으로 펼쳐 일어날 것을 결의 하였다.

노태우의 부정 조작학살집권./ 안정될 수 없다.

모든 민주세력은 부정선거규탄투쟁으로 나서야 한다.



지난 13일 노태우와 김영삼의 회담이 열렸다.

회담직전 박종철 민주당 사무총장은 "노당선자... 모든 것을 인정한다는 뜻을 온 세상에 알리는 의미있는 행사"라고 말했다. 진실로 박총장의 발언이 노-김 회담의 모든 의미를 말해주고 있다. 바로 노태우에 대한 인정이다. 부정선거 문제를 가지고 부정원용 노태우를 인정한 상태에서 다음 총선에서 부정선거 방지 대책을 세우자는 것이다. 어찌 부정원용이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학살원용이 어찌 광주학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럴수는 없다. 그것은 단지 노태우 개인의 인정문제로 국한될 것은 아니다. 바로 독재권력의 문제인 것이다. 노태우를 인정하는 것은 무혈쿠데타인 부정선거에 의한 독재권력의 연장을 인정하는 것이다. 곧 그것은 우리 4천만 민중을 또다시 살인과 고문, 최루탄의 늪으로 빠뜨리는 일이다. 노동자에게는 노예의 삶이 농민에게는 저농산물 가격과 농가부채가, 빈민에게는 철거의 위협이 그들의 생명을 하루 하루 조여갈 것이다. 노태우의 인정! 부정선거의 인정! 이것은 온갖 억압과 착취의 지속을 의미할 뿐이다. 우리 4천만 민중은 결코 이것을 인정할수 없다. 바로 이시간 우리 민중은 부정선거를 자행한 군사독재를 타도하고 민주주의를 쟁취할 것이냐? 아니면 또 다시 억압과 착취의 늪으로 빠져들 것이냐 하는 순간에 있는데 민주당을 비롯한 일부 야권에서 노태우 인정의 흐름이 생기고 있는 현실이다.

노태우를 인정하는 것은 4천만 민중의 이름으로,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모든 민주적이고 민족적인 정당, 계급, 계층은 "부정선거 독재타도"의 기치아래 부정 원용을 처단하기 위한 투쟁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모든 민주세력은 부정선거규탄투쟁으로 나서야 한다.

모든 민주세력은 부정선거규탄투쟁으로 나서야 한다.



추모사업회 준비위원회 안내

백기완	이소선	이부영	이태복	김현장	송경평	정태윤
권인숙	김광남	김정한	김진균	윤 용	이효재	명 진
박형규	김동완	김승훈	이정숙	인재근	배은심	김춘옥
박금순	김종신	김영애	김 경	이청자	성애만	김성자
최 민	황주석	박종운	김영열	백태웅	박은숙	김민석
남택범	박병국	박상현	이만제	최인호	이경호	민광섭
정병문	정덕환	최문정	전상훈			

이상은 현재 구성되어 있는 추모사업회 준비위의 회원명단입니다. 추모사업회 준비위는 박종철 열사의 투쟁적 삶을 자신의 것으로 계승하고자 하는 이땅의 모든 민주양심세력에게 언제나 개방되어 있으며 더불어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지지 동참을 바랍니다.

임시연락처 : 734-6175

의문사 진상규명 대책위원회

행사 안내

민주열사 박종철 2주기 추모 및
노태우정권 퇴진 결의대회



일시 : 1989년 1월 14일 오후 5시

장소 : 명동성당 문화관

주최 : 민주열사 박종철추모사업회 준비위원회
서울지역 총학생회 연합

후원 :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준비위원회

식 순

식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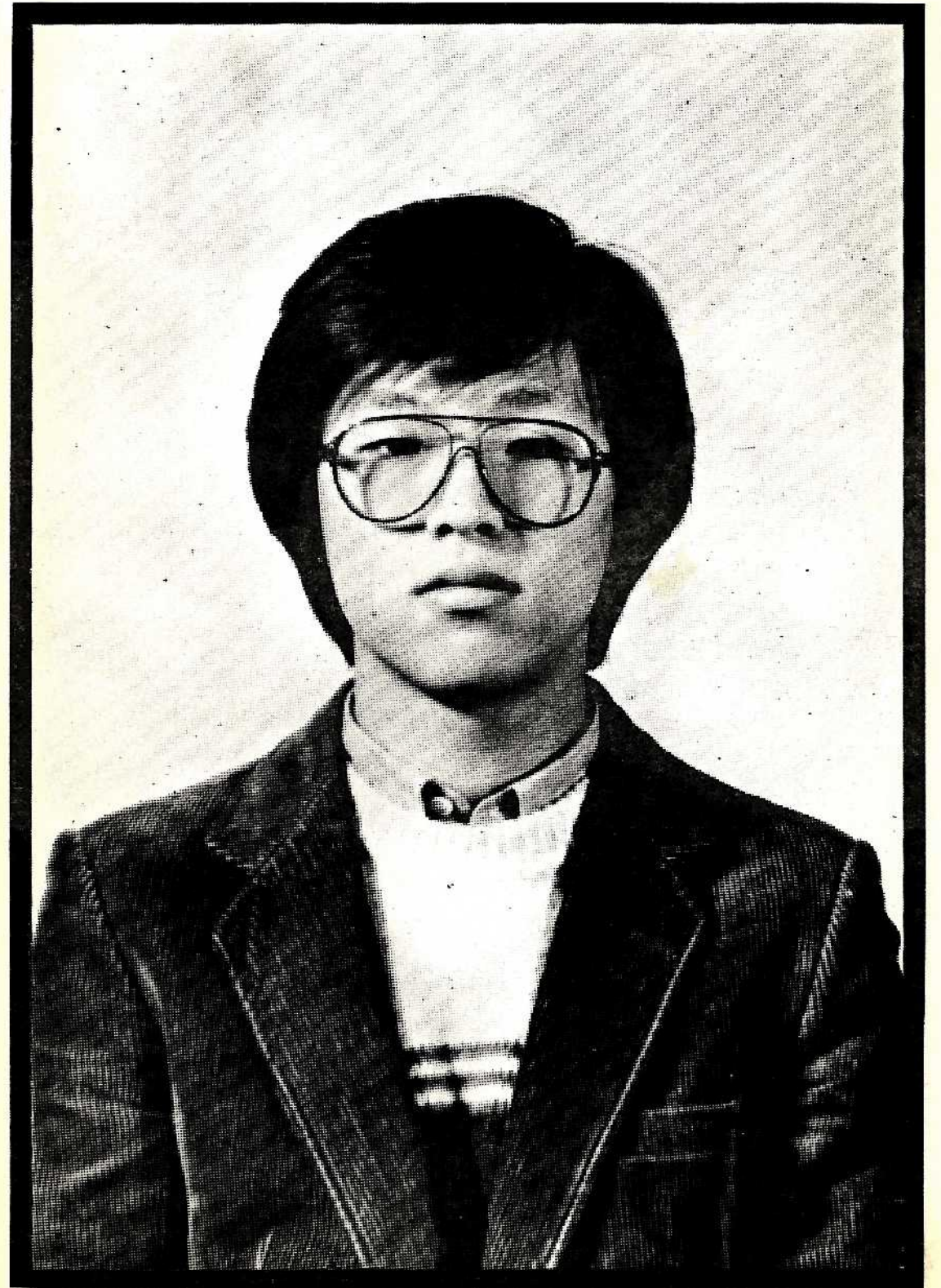
분향
노래-메아리

1부

개회선언-김민석
민주의례
회장인사-황인철
추모의 말씀-김진균
추 모 시-신경림
추 모 사-박종운
유가협투쟁보고-이소선
추 모 곡-메아리
합 창

2부

정치연설-장기표
투쟁결의
결 의 문
평화대행진



십만 백만 천만의 햇불이 되어

—박종철군 2 주기에—

申 庚 林

오늘은 네가 눈감은 날이 아니다.
이 땅의 아버지 어머니들의 가슴은
아픔으로 갈기갈기 찢어졌지만
어머니들의 한숨과 눈물이
아우성으로 바뀐 날이다.
아버지들의 무력한 두 주먹이
처음으로 불끈 쥐어진 날이다.
네 꽃다운 목숨이 떨어진 날이 아니다.
몽둥이질 발길질에 네가 쓰러진 날이 아니다.
도시와 마을에 자욱하던 안개가
서서히 걷히기 시작한 날이다.
안개 속에 묻혔던 더러운 것들 비겁한 것들
양상하게 드러나기 시작한 날이다.

오늘은 네가 쓰러진 날이 아니다.
우리들의 몸 속으로 피 속으로 들어와
우리가 힘있음을 스스로 알게 한 날이다.
우리들의 약한 손아귀로
몽둥이와 낫을 잡는 법을 알게 한 날이다.
네 고운 모습 그 참된 목소리가
이 세상에서 사라진 날이 아니다.
물고문 전기고문에 네 숨이 끊긴 날이 아니다.
화살이 되고 창이 되어 몸채로 통채로
원수를 향해 달려가는 법을 알게 한 날이다.
폭탄이 되어 원수의 가슴팍을
깨부수는 법을 알게 한 날이다.

오늘은 네가 멀리 가버린 날이 아니다.
그 젊던 몸이 재로 바뀌어
흘러가는 강물에 띄워진 날이 아니다.
막혔던 것이 강물처럼 터진 날이다.
갈라졌던 것 흩어졌던 것이
이어지고 한데 모여진 날이다.
네 맑은 눈이 하늘가에 잠든 날이 아니다.
힘없는 것 허약한 것들이 모여
비로소 큰 힘으로 일어선 날이다.
바람으로 강물로 온 나라를 휩쓴 날이다.

오늘은 네 몸 싸늘하게 식은 날이 아니다.
활활 하늘 높이 햇불로 타올라 세상을 밝힌 날이다.
앞장서서 달려가면서
우리 갈길을 밝힌 날이다.
이웃과 형제와 서로 어깨를 끼라고 소리친 날이다.
육천만 하나되는 그날까지
발걸음 멈추지 말라고 외친 날이다.
네가 흐느낌속에 울음속에 간 날이 아니다.
깃발도 만장도 없는 쓸쓸한 길을 간 날이 아니다.
너 돌아와 우리 몸과 하나되어
커다란 햇불로 활활 타오른 날이다.
십만 백만 천만의 햇불이 되어
돌맹이가 되어 총알이 되어 원수를 깨부순 날이다.
어둠과 눈물로 얼룩진 이 땅을
꽃과 춤으로 뒤덮은 날이다.

종철이 영전에

한반도 모든 민중이 너나없이 잘사는 세상, 우애와 온정이 넘치고 민주주의가 활짝 꽃피는 새날, 남북이 하나로 어우러져 기쁨으로 부둥켜안는 통일된 조국, 그 날을 만들기 위해 함께 싸우다 쓰러져 간 철아!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기려 '열사'라 부르지만, 너의 2주기를 맞이하여 다시 네 앞에 선 이 형은 아직도 너를 열사라고 부르고 싶지 않구나 철아! 어떻게 내가 다정하고 우애넘치기가 봄날의 따스한 햇볕 같았던 철이를 역사 저너머로 불러보낼 수 있겠느냐! 이 형은 흐르는 저 강물 속으로 너를 놓아줄 수가 없다.

그러나 철아! 그렇다고 너를 운이나빠 죽이간 연약한 꽃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왜냐하면 민중형제들과 동지들에게 항상 따스한 봄날 같았던 너는 적들과 맞서면 강인한 강철이 되고 모든 불의를 살라버리는 불꽃이었기 때문이다. 너는 동지를 지키고 운동의 대의를 사수하기 위해 장렬하게 싸워나갔다. 장렬하게 산화하였다. 네몸을 바쳐 우리가 있고 그래서 오늘도 이땅을 딛고 눈물을 삼킨채로 우리는 계속 싸워나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철아, 민주주의와 함께 너를 기억하는 온 국민의 가슴 속에는 너는 행동하는 양심의 표상이다.

철아, 너의 뜻을 이어받아 너의 못다한 몫까지 다하고자 싸우던 이 형은 수배해제조치로 최근에야 어머니, 아버지, 형님, 누나를 찾아뵙게 되었어. 그때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전에 생생하다. '우리 종철이는 온 국민의 가슴 속에 부활했고 또 조카 '병주'로 환생했다.' 그래, 모든 국민이 겨레의 통일과 나라의 민주화·자주화를 향한 위대한 투쟁의 도상에 함께 서 있는 한, 그리고 그 속에서 너의 불굴의 의지와 하나가 되는 한, 너는 영원히 우리 곁에서 부활한 모습으로 함께 나아가는 것 아니겠니. 마치 이 땅 모든 민중의 영원한 벗인 전태일 동지를 내가 책상 앞에 모셔놓고 항상 함께 했던 것처럼...

종철아, 나는 네가 저 흙혈귀같은 무리들에 맞서 싸우다 숨져간 데 대해 원통절통함에 떨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아직도 적들이 권좌에 머무르는 것을 용납할 수밖에 없는 내가 여간 미운게 아니다. 종철아, 이 땅에 반동의 광풍이 기승을 부리고, 민중의 정당한 삶과 민주주의를 위한 모든 몸짓이 국가보안법과 각종 악법의 된서리를 맞을 때, 너는 국가안전기획부·국군보안사령부·치안본부대공분실 등의 반민주적 정체와 그 진짜 우두머리들의 본질을 죽음으로 날날이 폭로했건만... 또 국가안보라는 휘황찬란한 겉옷을 걸친 그곳들이 실상은 구역질나는 반민주와 폭력·살인의 복마전임을, 참된 민주주의를 짓밟기 위한 반동의 도구임을 날날이 폭로했건만...

종철아, 최근에 신문에서는 어쩌면 네게도 그 검은 마수를 댔을지 모르는 전기고문기술자 이근안의 잠적을 보도하고 있다. 사면복권의 여운이 채 가시지도 전에 노동자를 탄압하

며 마각을 드러내는 노태우정권은 이 순간도 청와대 밀실에서 또 다른 은폐조작을 준비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철아, 한번 너를 잃은 우리는 이제 더는 속지 않는다. 이근안은 물론 모든 고문기구, 모든 폭력의 소굴을 깡그리 쓸어버리고 예측과 굴종의 역사, 독재와 착취의 역사, 반동과 폭압의 역사에 끝내는 종지부를 찍고야 말 것이다. 살인자들로 구성되는 정부가 아닌 참으로 애국적이고 민주적인 인사들로 구성된 정부와 나라를 만들어 너의 못다한 뜻을 기필코 이루고야 말 것이다.

철아, 해마다 돌아오는 이 자리를 나는 언제까지나 단순한 장탄식과 추모만의 자리로 만들고 싶지는 않다. 네가 목숨을 바쳐 수호하려고 한 민중의 이해, 운동의 대의, 동지애를 본받아나갈 우리로서는 이 자리를 너에게 그간의 활동을 결산하고 보고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자리로 삼고 싶다. 치밀어오르는 분노와 끝없는 억울함을 냉철하고 숙연한 각오로 승화시키고 싶다. 해마다 이 자리를 운동권 전체의 신년각오를 다지는 자리로 만들 것이다. 당장 올해부터. 그리고 다행히 그것은 올해부터 가능하게 되었다, 종철아.

철아, 아직 완전한 민주화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동안 우리 동지들과 국민들은 철이의 뒤를 이어 열심히 싸워서 많은 진척을 이루었다. 통일의 염원이 높아가는 가운데, 사실상은 통일에 반대하는 노태우정권의 잔피와 미국의 전쟁도발 책동이 서서히 폭로되고 있다. 폭력과 학살부정과 비리로 점철된 5공화국의 청산을 위한 투쟁에 온 국민이 합심하고 있다. 노동자·농민은 미국과 독점재벌에 반대하여 일어서고 각계각층에 민주주의의 요구가 높아가고 급기야는 소수의 반민족적·반민주적인 정치군인들에게 굴종해오던 군대내에서조차도 '명예선언'의 햇불이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다. 또한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년을 분단조국의 감방에 갇혀 있던 동지들도 다수 구출되어 속속 싸움의 대장정 대열로 복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거대한 하나의 해일로 만들어 내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금 단결하기 시작했다. 과거의 분열과 그로 인한 패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새로운 통일단결의 민중적 구심을 마련하고 있다. 철아, 철이가 어떻게 죽었는데 우리가 마냥 분열할 수만 있겠니. 철이의 불굴의 의지와 동지를 수호했던 동지애의 정신을 이어받아 민중적 중심을 확고히 하면서도 사소한 차이들은 흔쾌히 서로 포용해야지. 그래야만 다시금 우리 국민 모두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철이의 못다이룬 꿈도 이룰 수 있게되지.

너를 죽음으로 몰고간 미제와 군사정권의 철용성을 깨부수기 위해 이제 우리는 민중적 구심을 중심으로 각계각층의 모든 민주적 부분을 망라하여 온 국민과 함께 힘차게 전진할 거야.

민주화 투쟁의 위대한 도정의 구비마다마다에서 다시 살아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는 종철아! 너의 2주기를 맞아 민주승리에의 엄숙한 투쟁각오로 서 있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단결과 통일의 의지로 네 앞에 선 우리에게 힘을 다오. 달려와다오. 그래서 네가 그토록 희구하던 그곳, 자주민주 통일의 새나라로 함께 가자 철아!

신세벽을 부른다

작사: 백영산
작곡: 백영산

Handwritten musical score for the song '신세벽을 부른다'. The score is written on ten staves. The lyrics are written below the notes. The music is in a simple, melodic style with a key signature of one sharp (F#) and a common time signature (C). The lyrics are: 불바라, 라-라 들란 가-득 랫불 로-살-아오 라, 자유-자유 의 끝없는 날개 자오 로 지난한, 돌부림 의 로 너를 부른다-오직, 민주-민주 의 수결한 노여움 의 로 피끓는, 아위성의 로 너를 부른다 어둠, 끝간 데에 서 다가오는 신세벽이여! 어둠, 끝간 데에 서 다가오는 신세벽이여! (다만) Fine

결의문

87년 6월 민주투쟁의 촉발제가 되었던 박종철 열사의 2주기를 맞이한 오늘 우리는 현 노태우 정권이 민주화와 민족통일의 단순한 지연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군부독재체제의 수호자이며 광주학살과 5공비리의 장본인임을 확인하면서 민주화 투쟁의 의지를 다시금 가다듬고자 한다.

87년과 88년에 걸쳐 이루어진 정권교체를 비롯한 민주화의 진전은 비록 미흡할지라도 민중의 정치적 성장과 헌신적인 민주투쟁의 결과이며,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정권은 노동자계급을 비롯한 민중의 정치적 성장을 외면하고 짓밟으려는 시대역행적인 작태를 거듭 자행하고 있다.

보라! 대통령 선거와 총선즈음 보여준 그의 폭압성과 6·10 조국통일운동시 비추어진 그의 기만성, 국정감사를 통해 알게 된 현 체제의 부패함을. 또 국회특위 운영과 청문회 진행에서도 뚜렷이 드러났듯이 노정권은 광주학살의 진상규명과 5공비리 척결의 의지가 없는 것을 넘어서서 은폐·조작을 감행하고 있다. 이렇듯 군부독재 체제의 재정비를 추구하는 그의 반동적 성격을 노골화해 왔던 노정권은 드디어 전두환·이순자 구속처벌을 요구하는 온 민중 앞에 11·26 담화문이라는 협박장을 들이댔다. 군부독재체제 수호를 위한 이러한 도발은 당정 개편과 12, 21 양심수 석방, 양심수 석방과 관계된 야3당과의 합의문 이후 강화된 노동운동, 농민운동 등의 탄압에서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기존 제도권 야당에게 보수대연합을 강요하고 민중세력을 길들여 군부독재체제로 흡수하는 동시에 군부독재체제를 부정하는 민중세력을 무력화시키려는 책동에 지나지 않는 보수-혁신의 정국구도를 획책하고 있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 이는 군부독재체제 유지를 위한 이념대립에 지나지 않으며, 과거에도 그들은 기존 군부독재체제를 이른바 자유민주주의체제라고 우리를 기만해 왔고 진정으로 민주화와 민족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민족민주운동 세력을 과격·급진·혁신등으로 매도해왔음을!

이에 우리는 선언한다! 우리는 기존체제를 유지하려는 어떠한 세력과도 단호하게 투쟁할 것이며 이 투쟁은 바로 노정권 퇴진 투쟁임을 분명히 천명한다.

따라서 우리는 야당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광주학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5공비리의 완전한 척결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전두환을 국회특위에 출석시켜 증언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하며 사법처리의 원칙도 분명히 해야 한다.



어머니와 다정했던 한때

누가 너를 잊아갔는가
 감히 누가 너를 죽였는가
 눈물조차 흘릴 수 없는 우리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다
 너는 밝힌 자가 될 수 없음을
 끝까지 살아 남아 목청 터지도록 해방을 외칠
 그리하여 이땅의 사슬을 끊고 앞서 나아갈 너는
 결코 묵인 몸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결코 너를 빼앗길 수 없다-
 (서울대 언어학과 학우들의 추모시)

우리 민중이 원하는 것은 노정권에 대한 여론조사와 다름바 없는 중간평가가 아니라 그의 퇴진이다.

우리는 전 민주세력의 단합된 힘을 기초로 온 국민과 함께 노태우 퇴진을 위해 투쟁하는 대열에 야당들이 적극 동참할 것을 요구한다. 그것만이 국민과 함께하는 정당이 될 수 있는 길이다.

또한 우리는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민족통일방안등이 당리당락을 위한 흥정물로 되는 것을 결단코 거부하며 민중의 정치적 훈련과 단련의 장으로 될 지자체의 전면적 실시를 위한 투쟁에 야당이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민족적 대단결과 평화통일운동을 봉쇄하는 노정권의 대북창구단일화 논리에 부화뇌동하지 말고 또 하나의 조국으로서 북한을 법적 제도적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

이제 우리의 투쟁의지는 양심적 선언과 촉구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다.

민주화와 민족통일을 위해 싸우다 돌아가신 선열앞에서 우리는 엄숙히 결의한다. 노정권 퇴진과 새 시대의 지평을 여는 민중투쟁의 깃발아래 민족민주운동 세력은 일치단결하여 민족해방과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반제 반군부독재 투쟁에 일로 매진해 나갈 것이다.

군부독재 연장하는 노태우 정권 퇴진하라!
 광주학살 5공비리 공범자 노태우는 퇴진하라!
 조국통일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군부독재 지배도구 안기부·보안사·치안본부대공분실 해체하라!
 민중운동 탄압하는 노태우 정권 퇴진하라!
 민족생존 씨말리는 핵무기를 철거하라!
 열사의뜻 이어받아 민중해방 앞당기자!

민주열사박종철 추모사업 준비위원회
 서울지역 총학생회 연합



위장한 채 호송되는 고문살인경찰들의 파렴치한 모습

...누가 형을 죽였는가
 형의 목덜미를 쥐고 육조에 머리를
 처박고 전기줄을 형의 몸에 감은 두 살인마인가?...
 모든 민주 하는 놈들을 다잡아다 죽치라고 채근한 치안본부장, 내무부장관인가?
 우리들은 안다.
 종철이형을 죽인 자
 바로 자신의 존립을 위해 성고문등 온갖 끔찍한 고문과 살인행위를 서슴지 않는
 현 군사파쇼정권이라는 것을
 또한 그들이 바로 종철이형이 이땅에서
 몰아내고자 했던 무리들이라는 것을...

1987. 1. 20. 서울대 언어학우들의
 「종철형을 보내며」중에서

- 김성기 법무장관과 이영창 치안본부장은 2월 5일 담화문과 발표문을 통해 오는 7일의 고박종철군 국민추도회가 “불법집회이며 재야 불순단체들이 폭력혁명에 의한 정권타도 내지 체제전복의 정치선동목적의 집회를 할 우려가 있어 이를 원천봉쇄하고 참여자에 대해서는 의법조치하겠다”고 발표
- 2.7 추도회 7백98명을 폭력적으로 연행. 이날 오후 2시를 기해 명동일대를 비롯 전국 69곳에서 열려던 추도회를 경찰은 원천봉쇄하고자 했으나 경찰의 3중벽을 넘어 격렬한 가두시위를 전개 열사의 투쟁을 기립



악랄한 정권에 의해 2.7집회 참여를 저지당한 채 분노의 타종으로 오열하는 박열사 가족

- 87. 1. 16. 수배학우검거 위한 조사 과정에서 갑자기 쓰러져 죽었다고 정부당국 발표
- 87. 1. 19. 재차 정부당국은 경찰 자체 수사형식으로 물고문에 의한 폭력수사로 사망케 했음을 일부 시인
- 87. 1. 21. 빗발치는 국민의 분노를 무마하고자 검찰 고문살인의 주범으로 조한경, 강진국경관을 지목 구속 송치



2.7 경찰의 원천봉쇄로 명동성당 추도회에 참석치 못한 민주시민 청년학도, 거리를 메운채 가두시위를 벌이고 있다.

...채 피지도 못했던 한 젊은 양심은 친구를 팔라는 살인고문정권과 온몸으로 싸우다 죽어갔으며 이렇듯 온국민을 비통과 분노로 몰아넣은 박종철군의 고문살인은 6년전 오늘 이른바 제5공화국이 들어선 이후 더욱 악랄해진 고문탄압중 병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고 박종철군 부산지역 추모회준비위원회 성명서」중에서



3.3 박열사 49제를 원천봉쇄한 군부독재에 맞서 단호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민주화운동세력



진정한 민주사회건설을 위해 이땅의 모든 민주세력은 군부독재타도 투쟁으로 일어서기 시작했다.

- 5. 18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성명을 발표, 박열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살인경 찰들이 더 있음을 폭로하였다.
- 6. 2 검찰은 고문치사를 축소조작한 박처원등 세명을 추가로 구속하였다고 주장.
- 6. 10 고문살인조작규탄및 호헌철폐 국민결의대회를 원천봉쇄하려는 경찰에 맞서 대규모 가두투쟁을 전개, 전국적 투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 이후 열사가 죽음으로 항거하였던 국부독재에 대한 비타협적 투쟁은 군부독재 재집 권음모를 분쇄하고 민주헌법제정을 통한 민주사회건설투쟁으로 전국적으로 타오르기 시작하여 마침내 노태우를 앞세운 군부독재의 항복선언을 강요하였다.

■ 추모문집안내

『이 몸 바쳐 우리 이긴다면
—고 박 종철 열사의 마지막 3년』

박열사 추사 준비위원회 엮음

소나무 출판사 / 1989년 2월말 간행예정

“...이런 노동들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고 정당한 댓가를 받을 수 있을 때 그 때를 위하여 그 날을 향하여 내가 할 일은 무엇일까...”

(1986. 8. 5. 열사의 공장활동일지 중에서)

‘뜨거운 열정과 과학성’ ‘먼저 인식한 사람이 먼저 실천한다’를 생명처럼 여기며 살아왔던 투사 박 종철! 자신의 훌륭한 사상을 위하여 동지를 위하여 조금치의 타협도 거부한 채 쓰러져간 전사 박 종철! 열사의 죽음을 접하고도 감옥에서, 거리에서 눈물만 삼켜야 했던 우리들이 이제 열사의 훌륭한 삶을 여러분께 밝히고자 합니다.

■ 초혼장안내

청천벽력과도 같은 열사의 죽음앞에 온 가족과 민주세력이 오열하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을 때 열사의 육신은 군부독재의 피묻은 손에 의해 반강제적으로 화장 당함으로써 두번의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제 뒤늦게나마 가묘를 마련하여 민주열사 제위와 더불어 함께 하기를 간절히 염원하면서 초혼장을 치르고자 합니다. 모든 민주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일시 : 1989년 3월 3일
장소 : 모란공원묘지 (경기도 마석 소재)

1·14 대회 준비위원회 명단

백기완	문익환	계훈계	이소선	김정한	강희남
신경림	고 은	이부영	오충일	한상렬	배종렬
이영순	윤정석	이재오	고영구	명 진	김승훈
김진균	이효재	황인철	박용길	권처홍	서준식
유선근	이우재	제정구	조춘구	이호웅	단병호
이태복	정태윤	김현장	인재근	김춘옥	배은심
김종신	김 경	박금순	이석태	박정기	박광숙
김근태	김희택	최한배	장기표	안희대	정문화
이석원	박계동	원혜영	최 민	박용일	김정남
유인태	최병욱	송운학	송경평	윤영규	이부영
이우정	조성국	김윤수	김희선	정인숙	민종덕
이광호	김영대	문광명	윤진후	김태일	

이상은 박종철 열사가 남긴 투쟁의 정신을 1·14투쟁 대회로 부활시켜내고 1990년도를 승리원년으로 만들고자 애쓰신 분들의 명단입니다. 많은 분들의 뜨거운 지지와 동참이 이땅의 민주주의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민주열사 박종철 3주기 투쟁계승 및 노태우 정권 퇴진 투쟁 결의 대회



일시 : 1990년 1월 14일 오후 2시

장소 : 명동성당

주관 : 민주열사 박종철 기념사업회,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서울지역 민주주의 학생연맹

주최 : 민주화실천 가족운동 협의회, 서울지역 총학생회 연합,

서울 민족민주운동 협의회, 노동자대학,

가톨릭 민주청년 공동체

후원 : 전국 민족민주운동 연합, 전국 노동조합 협의회 창립 준비위,

전국교직원 노조, 전국 빈민연합, 민주교수협의회,

지원 : 서울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진보적 대중정당 건설을 위한 준비모임, 주간 노동자 신문,

한국 민족예술인 총연합, 민족문화 작가회의자유 실천 위원회, 한국 여성단체 연합,

인권수호운동 가족 협의회, 제 기념사업회 및 추모 사업회 일동



〈식순〉

● 1 부

개회 선언
민중 의례
준비위원 및 내빈소개
박종철열사 약력소개
추모시
추모사
추모곡 - 메아리

● 2 부

규탄 연설 - 기만적 5공청산에 대하여
투쟁 보고 - 노동자대학,
시국 연설 - 90년대 민족민주운동의 방향
결의문 채택

무기를 바로 잡고 함께 전진하기 위하여

박종철 동지 3주기에 - 김 남 주 -
오늘은 그날이다

조직의 비밀과 혁명의 대의를 지키기 위해
그대가 몸 바쳐 싸웠던 그날이다

그대 앞에서
동지와 조국의 미래를 위해서

죽음까지도 불사했던
그날의 그대 앞에서

나는 오늘 부끄럽다

민족이 해방을 요구하며

나라가 자주독립을 요구하며

동강난 조국이 통일을 요구하며

민중이 인간다운 삶과 행복을 요구하며

몸부림치며 피를 흘리고 있는 오늘

무엇 하나 이룬 것 없이

그대 앞에 선 내가

부끄럽고 부끄럽고 부끄럽다

동지

이렇게 내가 고개 숙여

부끄럼 떨구고 있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겠지

혁명의 씨앗은

어둠에 묻혀 철창에 갇혀

군화발에 짓밟히고 있는데

자유 나무는

민족의 나무 해방의 나무 투쟁의 나무는

모진 바람에 그 가지가 꺾이고

망나니들이 휘두르는 마구잡이 도끼질에

그 뿌리가 통채로 흔들리고 있는데

여기 와서 죽음 앞에 와서

산자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고

호통이라도 한번 치고 싶겠지

마음에 들지 않아라 나 자신이

원통 호통이라도 맞고 싶어라 그대에게



그러나 동지

그대 앞에 내가 선 것은

고개 떨구고 부끄럼이나 빗내기 위해서가 아니다

무기를 바로 잡기 위해서

사분오열된 갈기갈기 찢어진

전선의 통일과 단결을 호소하기 위해서

여기 그대 앞에 온 것이다

그대가 보여준 용기와

그대가 실천한 사랑과 헌신과

그대가 가르쳐준 과학으로

혁명을 무장하기 위해서

나는 여기에 온 것이다

살해당한 전사에게

살아있는 자가 바쳐야 할 것은

눈물이 아니라 꽃다발이 아니라

혁명의 순결이고 가차없는 투쟁인 것이다

그러니 동지 나에게 주오

물고문 전기고문 잠안재우기고문

갖은 고문에도 꺾이지 않았던 바위같은 의지를

나에게 다오 동지

철의 규율과

투쟁 속에서 달구어진 빈틈없는 조직을

나에게 다오 동지

바위의 침묵과

녹슬지 않는 강철의 무기를

그 무기를 들고 나

노동자 농민과 어깨동무하고

그대가 걸었던 그 길을 전진하리니

가서 압제의 세계 뛰어넘어

가서 착취의 세계 뛰어넘어

물고문 전기고문 없는 인간세상을 쟁취하리니

되찾아 민족의 해방을 되찾아

조국의 통일을 이룩하고

이 땅에 삼천리 강토에

자유와 평등의 왕국을 건설하리니

추모사

박종철 열사여!

오늘은 군사독재의 무자비한 폭압에 당신께서 쓰러진 지 만 3년째가 되는 날입니다.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의 탄압이 절정에 달하던 암울한 시기에 열사께서는 죽음으로써 동지에 대한 신뢰를 지키고 침체에 빠졌던 투쟁의 전선에 불을 붙였습니다. 끝이어 열사의 죽음은 각계 각층의 투쟁열기를 고취시키고 끝내는 값진 성과를 우리 모두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아직도 우리 귀에 생생한 "호헌철폐, 독재타도"의 뜨거운 함성! 열사께서는 6월 국민대항쟁의 불꽃으로 부활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열사께서 가신 지도 어언 3년,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열사의 영정 앞에서 몇몇하기 보다는 오히려 부끄러운 마음이 앞서는 것은 웬일입니까? 그것은 열사를 살해하고도 여전히 권좌에 앉아 4천만 민중을 억압하고 있는 군사독재 권력을 우리의 힘으로 퇴진시키지 못한 우리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또한 민중의 요구를 외면한 채 당리당략만을 좇아 반동권력에 추파를 보내고 있는 보수야당에 대해 심판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열사의 3주기를 맞는 오늘 저희는, 열사의 뜻을 기리며 힘찬 투쟁의 결의를 모아 민중승리의 90년대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열사여!

현재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 제반정세는 우리에게 막중한 과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노태우정권은 보수야당을 끌여들여 5공청산을 마무리 짓고 보수대연합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이에 대한 정지작업으로써 민족민주운동진영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5공청산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합니까? 그것은 결코 국회중언대에선 전두환의 뻔뻔스러움과 자기합리화, 그리고 정호용 공직사퇴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더구나 노태우정권과 보수야당의 합작사기극으로 종결될 수는 정말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없는 광주, 5공문제의 해결은 무효임을 4천만 민중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분명히 말하자면 먼저 전두환을 구속, 수사하여 광주, 5공문제의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전두환의 입에서 직접 광주, 5공문제의 책임자가 자신이고 나아가 노태우도 관련되어 있다는 말이 나오게 해야 합니다. 즉 광주, 5공문제의 해결은 전두환 구속, 노태우 퇴진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수야당의 노골적인 야합에 분명히 쐐기를 박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해 청와대 여야 영수회담 이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정치권의 행태를 보십시오. 지난 연말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여야 대타협의 실체를 말입니다. 이제 야 3당은 완전히 야당이기를 포기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전두환 TV쇼 하나로 5공청산이 마무리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열사여, 아직도 광주의 원혼이 제자리를 찾지못해 떠돌고 있고, 아직도 많은 양심수가 감옥에 있으며, 아직도

국가보안법 등 폐지되어야 할 각종 악법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노동자, 농민 등의 생존권 투쟁 등 민중운동에 대한 가혹한 탄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야 대타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야당이 야당이길 포기하고 민주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둘째, 민중운동 탄압에 방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야 4당은 밀약에 의해 예정된 코스를 갈 것입니다. 벌써 민주당은 유신본당인 공화당과 합치겠다고 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평민당은 지자제를 앞두고 연합공천이다 뭐다 해서 민정당에 추파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여야 모두 자기들끼리 행복한 밀월시대를 추구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러면 이들의 화려한 잔치에 제일 고통받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땅의 4천만 민중입니다. 이들의 화려한 잔치에 제일 걸림돌이 될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들 민중입니다. 자신들이 보기에 급기야 자신들의 발상을 뒤엎으려 한다고 믿고있는 그들은 필시 우리에게 뭔가를 준비할 것입니다.

박종철 열사여, 이제 노태우정권의 탄압의 칼날이 휘몰아칠 것이고 이에 뒤질세라 보수야당이 박자를 갖출 것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오로지 당리당략을 좇아 5공청산과 민주화라는 국민의 열망을 외면하고 반동권력과의 야합행각을 즐기는 보수야당에게 머지않아 국민의 거대한 분노가 밀어닥칠 것입니다. 열사여! 6월항쟁 이후 우리 민족민주운동은 실로 거대한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각계 각층 민중들의 끊임없는 진출은 드디어 지난 해 전민련, 전농연, 전교조 등 전국적 규모의 대중운동조직의 결성을 가능케하였습니다. 전노협 결성도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또한 지자제를 전후하여 진보적 대중정당도 창당됩니다. 이 모든 것이 희망찬 90년대 민중주체의 새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반동권력의 행각을 보십시오. 이러한 민중의 거대한 진출에 두려움을 느낀 노태우정권은 지난 해부터 소위 공안정국을 조성, 파상적인 탄압을 가해오고 있습니다. 드디어는 "경제위기 노동자책임실" 등 이념공세를 통해 민중을 협박하고 소위 "전경협" 결성, "임금동결 발표" 등을 통해 탄압의 사전분위기 조성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노태우정권과 민중의 한판 격돌은 피할래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삼년 전 박열사의 죽음을 계기로 민족민주운동의 공세가 개시되어 전두환 정권을 허물어뜨렸듯이 이제 열사의 3주기를 맞는 이 시점부터 우리는 노태우정권 퇴진투쟁을 가열차게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체질적이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열사여! 비록 열사는 가고 없지만 민중을 탄압하고 열사를 살해한 자들이 계속 권좌에 앉아있는 한 고통받고 억압받고 그러면서도 자신의 해방을 위해 간단없는 투쟁을 벌이고있는 민중 속에서 열사는 부활할 것입니다. 투쟁의 현장 곳곳에 열사의 정신이 스며들어 투쟁을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투쟁에 불을 붙여 열사를 부활시킵시다.

박종철 열사여, 민중투쟁의 불꽃으로 부활하여 민중승리의 그날을 앞당기도록 힘을 주소서!

추모를 위하여

그날이 오면,

한 밤의 꿈-은- 아 니라 오 랜 고 통 다 한 후 에 내

형 제 별-나- 두 눈 에 빛 나 는 눈 물 들 한

죽 기 강-물로 흘-려 고 된 땅 밭을 함께 흘려 그

말 은 뱀-회와- 바다 에 일 의 의 물결 넘-쳐 는 곳

그 날 이 오 면 그 날 이 오 면 내

형 제 그리운 얼굴들 그 / 짧은 추억 도 아-
2. 아픈 추억 도 "아-

짧 아 면 내- 절-음-도 헛된 꿈이- 아니었으리
피 땀 한 우-기-다 걸도 헛된 꿈이- 아니었으리

그 날 이 오 면 그 날 이 오 면

투쟁을 위하여

동지여 내가있다.

1. 그 날이 올 때까지 그 날이 올 때까지
2. 새 날이 올 때까지 새 날이 올 때까지

우 리의 깃발 은 내 릴 수 없 다
우 리의 투쟁 은 멈 출 수 없 다

이 름 없 이 쓰 러져-간 동 지-틀 이-여
싸 우 다 가 쓰 러져-간 동 지-틀 이-여

외 로 워 마 서 러 워 마 우 리 가 있 다

젖 긴 깃 발 휘 날 리며 나 여 기 서 있 다
힘 찬 깃 발 휘 날 리며 나 여 기 서 있 다



“너희들의 숨통을 조르기 위해,
저 위대한 파쇼정권의 영원불멸
을 위해 우리가 달려간다”

“그렇다!
이 싸움은 결코 피할 수 없는 결전!
투쟁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힘차게
내어뻘은 이 손아귀로 기필코 승리
의 90년대를 움켜 잡으리라!”



“아 종철아!
민중의 희망으로 되살아나는
불사조야. 이제 우리 다시 너를
부르며 민주주의를 부르며 소리
치며 이제 모든 좌절과 동요를 떨치
고 투쟁의 전선으로 휘달려간다.
종철아! 종철아!”



죽음에서 부활로!



“내 자식 귀한만큼 남의
자식도 귀한 줄 알았다면
어찌 어린것에게 그런
몹쓸 짓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 아이가 무슨 큰 죄인이란
말입니까”

폭력 정권에 의해 2·7 추도집회 참여조차 저지
당한채 분노와 통한의 타종으로 오염하는 박열사
의 가족

박종철 열사의 정신은 87년 6월 대
민중항쟁의 불씨로 되살아 났고 민중
승리의 그 날이 보이는 듯 했으나...





“종철이의 부릅뜬 눈이 아직도 시퍼렇기만 한데 자유민주주의의 허울을 뒤집어 쓴 저 야만적 정권은 제2, 제3의 종철이를 또다시 난자질 하였다.”

파쇼정권에게 진실을 규명해 달라고 구걸했던 나약한 투쟁이 끝내 사인조차 규명하지 못하고 말았다. 이철규 열사의 지켜뜬 눈을 보라!

“불어온다. 권력의 안락의자를 지키기 위해 5공청산의 기만적 종결선언! 탄압시나리오의 착수!로 민중 몰살 작전의 바람이 불고있다!”



아! 저자가 누구인가?
아직도 광주민중의 붉은 피가 묻어있는 저 손을 덥석 부여잡고 머리조아린 6공의 하수인 들이여!
그래도 6공하의 5공청산을 땡땡 거리겠는가!



- 12·31 증언을 위해 국회로 출두한 전두환

믿어주세요, 이 노태우 자본가 여러분의 천국을 수호하기 위해 반드시 초토화 작전을 완수하겠습니다.

“어머니, 울지 마세요.
어머니의 아들은 더이상 나약한 학생이 아닙니다.
민중해방 전선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전사입니다.
어머니께서 활짝 웃으시며 사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까.
저들은 우리의 신체는 구속하지만 우리의 사상은 구속하지 못합니다.”



박종철 열사 추모 문집소개



우리는 이제 '살아있는 박종철'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글이 그동안 이 땅의 진정한 민주주의와 해방을 위해 헌신적으로 싸워온 많은 훌륭한 투사여러분들에게 또 한번의 굳은 결의를 가져다 주고 우리의 투쟁대열을 튼튼하게 꾸리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뿐만 아니라, 파쇼세력의 가위질과 거짓선전으로 인하여 진실의 바다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받고 있는 민중형제들에게는, 박종철열사의 삶이 민중형제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얼마나 그득히 담고 있었는가를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 본문 중에서

민주열사 박종철 기념 사업회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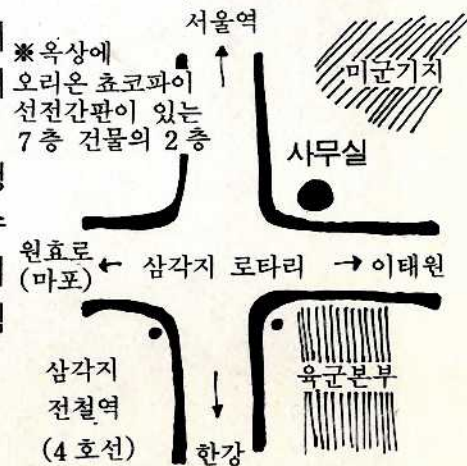
본 '민주열사 박종철 기념사업회'는 열사의 뜻을 자신의 삶으로 계승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조직입니다.

기념사업, 인권수호사업, 보훈사업, 소송투쟁사업, 홍보선전사업, 조직사업 및 재정사업을 수행하면서 4천만 민중 여러분과 만나고 있으며 열사의 정신에 부끄럽지 않도록 투쟁사업에 힘쓰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을 바랍니다.

TEL : 794-8446

구좌번호 : 012-24-0238-741 황주석



“박종철 열사의 3주기를 추모하며
찬연한 빛으로 부활할
민중해방의 그날을 향해
다함께 걸어갑시다”

그날이오면, 열린글방, 백두서점,

전야서점 (서울대앞)

을서림, 오들의책 (연세대앞)

서강인 (서강대 앞), 이어토 (홍익대앞)

거름출판사
동녘출판사

“이 어둠을 불사르는
햇불로 우리들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오는 동지여!
통한의 눈물을 씻고 승리의
투쟁에 우뚝 서소서!”

성명서

우리는 8월 17일 서울 고등법원 형사 1부(재판장 유근완 부장판사)가 박종철 고문살인 은폐조작 관계자들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민데 대해 실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1심에서 범피자들에게 제대로 응징하지 않고 집행유예시킨 것도 이해할 수 없었던 차에 2심은 오히려 한술 더 떠 그들에게 면죄부를 발행하는데 앞장 서고 있으니, 도대체 재판부에게 국민은 무엇이며 6월항쟁의 교훈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 민주주의로 가기도 바쁜 시점에서 3당합당이후의 정권의 파렴치한 정치적 행각에 이어 법원마저 5공시대를 연상케하는 이러한 판결을 내놓는데 대해 우리는 새삼 서글픔과 분노를 느낀다. 또 이 판결을 놓고 경찰관계 방청객들이 환호성을 올렸다는데 대해서는 불의의 마수에 의해 꺼져간 생명과 국민에 대한 무시가 극에 달했음을 알고 말조차 입을 정도이다.

도대체 재판부는 어떤 자들로 구성되어 있기에 은폐조작 관계자들에게 "사건 직후 부하직원에게 한 조치는 사회혼란을 방지하는 등의 목적때문에 한 지휘자로서의 정책적 고려"(중앙일보 8월17일)은 온하면서 오히려 '훈장'을 수여하고 있는가?

그동안 경찰이 고문기술자들을 거느리고 고문기술자들을 보호하는 일에 앞장선 것이 분명한데, 도대체 강민창이라는 경찰 총수와 박치원 유정방 박원택이라는 간부들이 또 전두환을 위시한 관계기관대책회의가 은폐조작을 지시하지 않았다면 감히 누가 했겠는가? 그러면 '우발적으로' 은폐조작이 일어났단 말인가? "정책적 고려"와 '고의'는 말장난에 불과할 뿐이다. 이미 경찰과 관계기관대책회의는 김근태씨 고문에서부터 권인숙 씨 성고문에 이르기까지 고문을 자행하고도 이를 체계적으로 은폐하려는 기도를 충분히 드러낸 바가 있다. 당시 "성을 폭력혁명의 도구로 삼는 운동권"을 온존하는 작태를 보인 것은 누구란 말인가? 그외에도 수많은 민주지사 애국지사 민중운동가들에 대한 고문 탄압은 그들의 증언으로 익히 알려져 있는 바이다. 이런 마당에 이번 재판부의 판결을 믿을만한 사람이 국민중에 누가 있겠는가? 행위는 있는데 책임자는 없다는 기묘한 결과를 과연 누가 믿겠는가? 그리고 어떠한 협박이 있었는지 몰라도 이미 언론을 통해 만천하에 알려질 만큼 알려진 부검의 황적준 박사의 폭로 즉 부검의사소견을 고쳐쓰도록 압력을 가한 사실과, 박치원등이 내보였던 1억원짜리 봉장이나 법무부 등 정부 고위관계자가 조한경등을 설득 회유했다는 사실등은 왜 증거에서 제외되었는가?

우리는 이번 판결이야말로 고문을 합법화하는 일이고 이 땅에 민주, 인권을 정착시키려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라고 본다. 동시에 우리는 이번 처사가 비록 법원에서 일어났지만 민주 인권을 다시 금 짓밟으려는 노태우 군부-민자당 정권의 전초전으로 간주한다. 왜냐하면 3당합당의 여파가 이제 여기 법원의 판결에까지 미친 것이고 정권적 차원을 넘어선 보수 수구세력 전체의 일관된 행동이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더욱 고도화될 지능적인 고문행위가 판을 치게 되지 않으리라고 누가 보장하겠는가? 고문지휘자는 면죄부를 받을 길이 열렸으니까 말이다. 고문기술자는 이근만처럼 도피시키면 그만일테고... 그러나 또한 우리는 이번 판결이 정부 법원을 포함하여 사회각계각층에 퍼져있는 독재체제를 유지하려는 보수 수구세력의 마지막 발악이라는 것을 안다.

그동안 우리는 노태우의 부드러운 미소 뒤에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탄압을 당하고 무시당해왔는가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5공때의 두세배가 되는 정치범들, 최근 최동씨를 죽음에 이르게한 지능적인 고문행위, 3당합당 민자당 탄생이후 의사 개혁조치들의 후퇴, 국회 날치기풍과 6월항쟁의 성과를 송두리째 뒤엎으며 장기집권을 획책하려는 내각제 개헌 책동등 이루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그렇지만 노동현장에서 농촌에서 가두에서 민중들은 투쟁하여왔다. 그 일단은 5월 9일 전국적인 거대한 반민자당 시위로 드러났고, 국민연합, 비상시국회의 등으로 반민자당 진영이 재결집되었다. 이제 3당합당으로 장기집권을 획책하려던 노태우 정권과 보수 수구세력은 민중의 철퇴를 받을 심판의 날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 음흉한 미소만으로는 더이상 안전판이 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전국경제단체협의회, 보수대연합 민자당, 통합군제, 방송법개악, 금융실명제 토지공개념 폐기, 지자체 연기등으로 대표되는 6공체제의 보수수구세력의 총체적 도전에 직면해있음을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하여 뼈저리게 인식하고 있다. 이제 노태우정권과 보수 수구세력(여기에는 미국도 포함된다)을 확실히 물리치지 않으면 제 2 제 3의 박종철이 나오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암울한 5공체제 유신체제가 또다시 우리 앞에 서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기 힘들다. 최근 5공비리의 대명사 엄보현이 석방되고, 5공 관계자를 중심으로 한 초보수정당이 생겨나리라는 관측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비장한 각오를 갖게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민주운동세력 민족통일운동세력과 계속 힘을 합쳐 노태우정권과 보수 수구세력의 일소에 일로 매진할 것임을 재차 밝히는 바이다. 우리는 물론 대법원에서나마 올바른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할 것이지만 이번에 재확인된 보수 수구세력의 음흉한 책동을 깨부수는일을 게을리 할 수 없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다 숨겨진 박종철의 뒤를 이어 제 2 제 3의 박종철이 되어 끝끝내 투쟁할 것이다. 그리하여 90년대 이 조국에 민주승리를 안아오고야 말 것이다.

1. 검찰은 지체없이 즉시 상고하고, 고의로 빠뜨린 증거들을 다시 포함시켜라!
2. 법원은 인권침해에 면죄부를 발행하는 일을 더이상 하지 말라!
3. 우리는 범 민주세력과 연대하여 노태우정권과 보수 수구세력에 맞서 싸울 것이다!

1990년 8월 18일

민주열사 박종철 기념사업회

고문, 되살아나려는가?

—고문합법화와 6월항쟁 무효화음모에 대한
규탄강연회



8.23 한겨레

연사 : 고영구(변 호 사) —무죄판결의 허구성에 대해
인재근(김근태씨 부인) —최근의 인권유린실태에 대해
이부영(통추회의 실행위원) —고문은폐조작 폭로의 고장

때 : 1990년 8월 31일 (금요일) 오후7시
곳 : 기독교회관 강당

주관 : 민주열사 박종철 기념사업회 전화 : 336-8452

공동주최 : 이한열추모사업회, 박래전기념사업회, 김상진기념사업회
남태현추모사업회, 전태일기념사업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인권수호운동가족협의회,
KNCC인권위원회, 전민련인권위원회, 서울대총학생회

후 원 : 민자당 일당독재 분쇄와 민중기본권쟁취 국민연합 (전노협등)
평민당, 민주당, 민중당, 범민주수권정당결성을 위한 통합추진회의

되살아나는 고문의 망령

1990년 8월 17일, 이날은 다시금 공공연히 고문이 판칠 수 있게된 날입니다. 이날 사법부는 정권과 공모하여 고문지시 은폐조작자들에게 면죄부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끝이어 터진 납치극

치안본부 대공분실 관계자들은 면죄부가 발행되자 미친듯이 날뛰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제 고문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아마 노태우도 환호성을 올렸을 겁니다. 한 손에는 고문통치를, 다른 한 손에는 내각제를 움켜쥐고 영구집권의 길로 내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열흘도 채 지나지않아 치안본부는 '영장발부'가 복잡(?)하다고 백주대로에서 전 서울대 총여학생회장인 이진순씨를 납치하는 짓을 저지렸습니다. 3당 야합에다가 고문면허장까지 생겼는데 영장이 문제였습니까?

그러나 6월항쟁을 무효화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김근태씨 고문경관 이근안은 당국의 방조하에 6백일째 도피중입니다. 역으로 시국관련 구속자는 이미 1,400명이나 되었습니다. 더이상 가다가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전국민이 감옥행이 될 판입니다. 이대로 이렇게 6월항쟁을 물거품으로 만들수는 없습니다.

한겨레그림판 박자동

